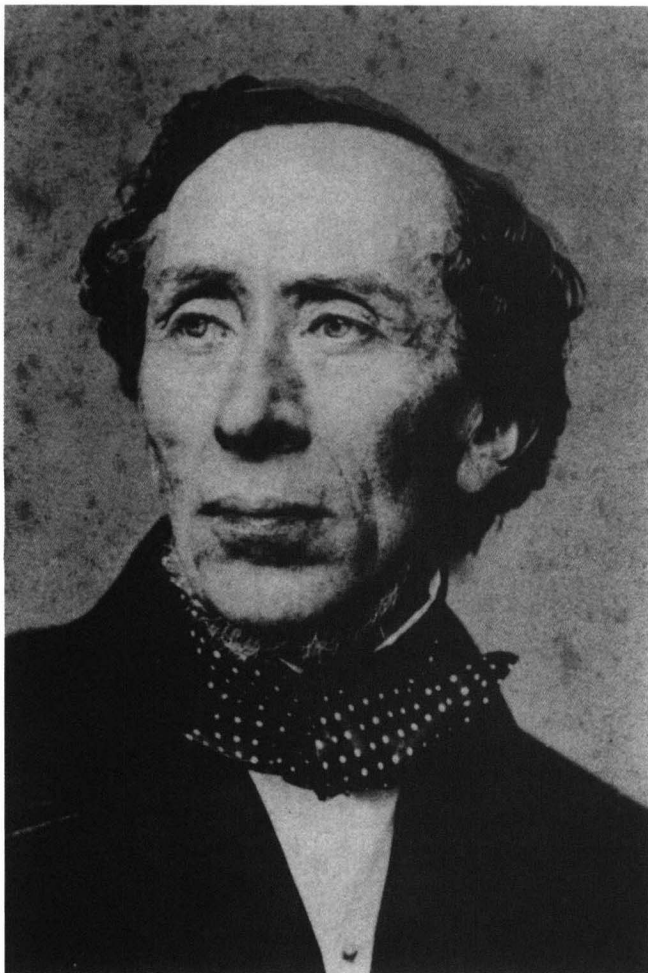


탄생 200주년 맞은 동화작가 안데르센

왕부터 거지까지 고개 숙인 동화의 아버지

글 | 김서정



고 있는 욕망과 절망, 사랑과 질투, 고상함과 천박함 같은 이중적인 속성을 파헤쳤습니다. 그의 깊은 눈앞에서 정체를 감출 수 있는 인간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괴로움과 즐거움, 영광스러움과 덧없음을 펼쳐놓았습니다. 안데르센 자신이 정신병자의 손자에 가난한 고학생이라는 인생의 밑바닥 자리에서부터, 덴마크 역사상 최고 작가로 존경받는 자리로 올라오는 동안 수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안데르센은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적인 요소, 신기한 인물, 신기한 사건, 재미가 톡톡 튀는 대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글은 생생한 인물, 넘치는 시정, 경쾌한 유머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도 깊이 있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투와 동작이 눈앞에 선히 그려지는 등장인물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뱉는 우스갯소리 안에는 인간과 인생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진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통해 안데르센은, 그래도 이 세상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안데르센이 그리는 세상은 한겨울 길에서 얼어 죽을 정도로 힘들고, 사랑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인생은 화려해 보이는 한때가 지나면 너무나 허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견디고 나면 백조처럼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사랑을 다시 찾을 수도 있고,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사람도 자신감에 넘쳐 자기만의 방식으로 밀고 나가면 공주와도 결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도 또한 안데르센의 동화입니다.

안데르센 이전에는 아이들 읽을거리로 전래동화가 고작이었습니다. 안데르센 자신도 전래동화를 다시 쓰는 일로 동화작가 생활을 시작했지요. 그러나 아이들용 창작 이야기를 문학의 반열에 올려놓은 작가는 그가 최초였습니다. 안데르센 이후 수많은 동화작가들이 나왔지만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동화작가도 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 안데르센상이라는 건 이제 아동문학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안데르센은 1805년, 덴마크의 오펜제라는 외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구두수선공으로, 아들이 열한 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할아버지는 정신병원에서 죽은 데다 할머니도 허황한 소리를 하도 많이 해서 정신이상자 취급을 받았는데, 이런 가족 병력이 안데르센에게는 평생 스트레스로 작용했습니

안데르센은 흔히 '동화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는 동화에 자신의 전 존재를 집어넣었습니다. 안데르센은 동화를 단순히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 꿈, 사랑하거나 미워했던 사람, 슬프거나 기뻐했던 순간들을 모두 털어놓는 고백의 장으로 여겼습니다. 어린이용 문학이건 어른용 문학이건, 문학은 그렇습니다. '읽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다' 보다는 '이 글을 통해 내가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리고 싶다. 내 안에 들끓는 나의 표현 욕구를 펼쳐놓고 싶다'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안데르센은 그렇게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알린 작가입니다.

그러면서도 안데르센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기본적으로 가지

다. 그러나 다행히 그 병력이 그에게는 정신병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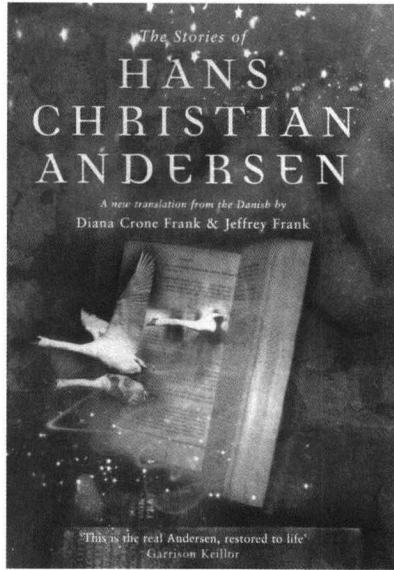
어머니는 몹시 가난한 유년기를 거쳐 험한 세월을 보내다 남편을 만나 정착했다고 합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구걸 행각에 나서야 했던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 나왔으며, 《쓸모없는 여자》 같은 작품에도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들어 있습니다. 안테르센의 깊은 신앙심은 어머니의 영향이었습니다.

안테르센은 혼자 인형놀이를 하고 놀던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허황할 만큼 꿈을 꿔왔습니다. 열네 살 때 배우나 가수가 되겠다며 훌훌 단신 코펜하겐으로 갔지요. 하지만 얇은 단벌 옷과 찢어진 구두 때문에 감기를 달고 다녀 목소리를 망치는 바람에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다음에는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그 못 생긴 얼굴로(!) 배우란 언감생심이었지요.

결국 그 다음 목표가 작가였는데, 드라마, 시, 소설, 동화, 여행기 등을 닦치는 대로 쓰다가 마침내 동화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안테르센은 처음부터 '훌륭한 동화작가가 되겠다'가 아니라 '어떡하든 유명해져야겠다'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동화에 일생을 걸기로 작정하고 유명한 동화작가가 된 뒤에도 인정받고 싶은 그의 욕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열등감과 자기연민에 한없이 시달렸습니다. 어찌 보면 혐오스럽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한, 자의식 과잉인 예술가의 극단적인 예를 우리는 안테르센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테르센은 그 양극을 달리는 자의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걸 딛고 일어서서 자신의 존존재와 능력을 쏟아 붓는 작품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안테르센은 많은 작품에서 신앙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시궁창 물 한 방울에까지 모든 사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애정 어린 눈길도 보여 주었습니다. 꽃 한 송이건 장난감 공 한 개건, 그의 손안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생생하고 개성 있게 살아 숨 쉬는 하나의 생명체로 다시 태어납니다. 또 인간 심리 저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그의 이야기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고 세밀하고 특히 색감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세부 묘사를 보세요. 비통함과 우울함을 쓸쓸하면서도 따뜻하게 덮어주는 유머감각, 통통 튀는 구어체 말투 등도 안테르센의 이야기에서 놓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동화를 통해 덴마크뿐 아니라 온 유럽 최고의 작가로 인정받게 된 안테르센은 영예로운 말년을 보내다 70세 되던 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화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이, 그는 늘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병상에서도 아픔을 잘 참았고, "얼마나 나는 행복한가. 나는 마치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멀고 먼 나라에 여행을 떠나는 것 같다"고 적고 있습니다. 안테르센의 장례식에서는 왕부터 거지까지 온 나라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안테르센의 묘지에는 지금도 꽃이 끊이지 않고, 코펜하겐 역 광장 앞의 커다란 동상 옆에는 그 무릎에 기대어 함께 사진 찍으려는 사람들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한글**



안테르센은 처음부터 동화를 쓰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시, 소설, 여행기 등 닦치는대로 쓰다가 마침내 동화의 세계에 빠져들게 됐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안테르센은 영예로운 말년을 보내다가 70세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 이 글을 쓴 김서정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 뮌헨대학에서 수학했다. 현재 숙명여대 겸임교수로 있으며 동화작가, 평론가, 번역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평론집 《어린이문학 만세》 《멋진 핀타지》, 동화책과 그림책 《민거나 말거나 동물 이야기》 《몸감한 꼬마 생쥐》 《나의 사직동》 등이 있다. 《미오나의 미오》 《일주일 내내 토요일》 등을 번역했다.